TRICITY KoAm 트라이시티 코암

Korean American

트라이시티한인장로교회 TRI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발행번호 6 **여름Summer 2015**

KoAm 에세이– 임성철 목사

병아리 이야기

삼일 된 병아리를 여섯마리 구입해서 키웠다. 병아리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온도다. 처음에는 95도 이상의 온도를 맞춰 주어야 한다. 그래서 백열전구를 종이 상자 안에 넣어 주고 온도계를 설치하고 상자 위를 봉했다. 병아리를 보기위해 상자에 눈구멍을 내어 본다. 병아리들이 추우면 전구 주위로 함께 모여 있고, 더우면 전구에서 멀리 떨어지며 체온을 유지한다. 그 조그마한 상자 안에서 자기 세상을 만들어 노는 것이 신기하다.

그렇게 2주를 보내고 난 후 닭장에 병아리를 넣어 주었다. 여전히 4월의 밤은 춥기에 백열전구를 알을 낳는 작은 방에 넣어 주고 입구를 칸막이로 막아 주었다. 그렇게 10여일 적응하니 병아리들이 제법 커서 전구 없이도 잘 지낸다. 물과 먹이만 있으면 알아서 논다. 그러다 잔디밭에 풀어주면 놀다가도 어둑해지면 집으로 알아서 돌아 온다. 닭장으로 돌아 오면 그들은 넓은 공간이 있으매도 병아리 때부터 있던 그 작은 방으로 기어 들어간다. 한 3개월이 되니 이미 많이 커서 그 공간으로 부족한데도 기여코 그 방으로 들어간다. 다 발이 바닥에 닫지 않으니, 다른 놈 위에 올라가서라도 그 방에서 잠을 잔다. 정말 귀엽다. 닭은 밤이 되면 전혀 보지 못하니, 이 때가 닭들과 스킨쉽하기 좋은 시간이다.

얼마전 가족이 여름 휴가를 갔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닭이 2마리나 죽어 있다.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니 장담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옆집에 붙어 사는 회색 고양이의 짓 일 것이다. '붙어 산다' 말하는 것은 그도 그 집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떠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돌봐 주니 옆 집에 눌러 앉은 고양이기 때문이다. 병아리가 오고 한 달 쯤 되었을때, 뜰에서 먹이를 먹으며 놀고 있는 병아리를 사냥하려고 노려 보고 있는 그 고양이를 혼내 쫓은 적이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놈 짓 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다.

닭이 된 병아리

죽은 닭을 보고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다. 잘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주인이 없는 동안 침략자에게 공격 당하고 쫓겼을 모습을 생각하면 불쌍하다. 가축이 달리 가축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다음부터 집을 비울 때는 좀 더 철저히 안전을 생각하고 떠나야 겠다고 다짐한다. 죽은 닭에게 미안하다.

첫 알

그런 뒤 2주 후, 닭이 첫 알을 낳았다. 이제 4개월 하고 1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특하게 알을 낳은 것이다. 어른들이 말하기를 한 6개월은 있어야 알을 낳다 했기에 알 낳는 자리도 깔아 주지 않았다. 그러니 그냥 마루바닥 위에 알을 낳은 것이다. 그래서, 빨리 마른 풀을 깔아 주고, 알 낳는 곳에 커튼을 쳐주었다. 컴컴한 곳이 있어야 닭이 알을 낳는데 편하다 해서다.

아직 젊은 닭이라서 그럴까! 알이 작아 귀엽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다가 시간이 흘렀다. 오늘에서야 계란 맛을 본다. 맛이야 특별히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키운 닭의 알이여서 그럴까! 엄청 신기하고 맛있다 ㅎㅎㅎ. 이제 알을 많이 낳아라. 나도 잘 지켜줄께……!

목차

코암 에세이	1
교회 수련회	2
한인회 소식	2
신앙의 글	3
선교지 소식	3
추천도서	4
그림으로 보는 명상	4

2015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율동 배우는 어린이

장소/Place: Holston Presbytery Camp and Retreat Center, /홀스톤 노회 수양관 Banner Elk, NC 28604.

일시/Time:2015년 7월 17-19일(2박3일)

단체 기념사진

식사 시간

물놀이 (좌,우)

강의 시간(좌)

캠프파이어(우)

한인회 소식

트라이시티 한인회 여름 야유회

이고장 한인들이 야유회 및 정기총회를 8월 30일(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Bristol, TN에 있는 Steele Creek Park의 Civitan Shelter에서 갖게 됩니다. 음식을 준비해 오셔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행사는 식사, 한인소식, 정기총회 입니다.

연락처:

회장, 서갑식

423-288-6279(h)

kabseo@gmail.com

총무: 허림, Philip Crowder

423-914-0262(c)

신앙의 글

신앙 간증 - 정향순 권사

5월 17일, 딸과 손녀와 함께 찰리를 만나러 집에 갔을 때, 찰리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딸 쉴라가 찰리에게 왜 월마트로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냐고 물었다. 찰리는 무척 아팠다고 했고, 그 날도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전 부인에게 손녀 멜로디에게 사탕 주기를 요구한다.

나는 찰리에게 직장에서 보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정말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고 다들 만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찰리 포드는 37년 전부터 Alami에서 일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작장 동료이다. 이제 나이가 55세 밖에 되지 않았는데 위장암에 걸린 것이다. 그것도 4기라한다. 늘 건강해서 병원에 가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지 않았던 그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보니 위장암 4기인 것이다.

찰리는 무슨 생각을 해서인지 우리에게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다. 아마도 찾아온 친구들이 고마워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바랬을까? 나는 그에게 이 사진을 좋은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말하자. 그는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허그해 주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5월 24일, 나는 다시 그를 방문했다. 왠지 그날 그에게 찬송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말로 찬양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불러 주었고 끝나갈 때 그는 이미 울고 있었다.

5월 31일, 찰리는 무척 아팠고, 나를 보자 내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불러 줄 수 있겠냐고 말하기에, 나는 다시 그 찬양을 불러 주었고, 그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였는데 찬송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상태가 더욱 심각해진 찰리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6월 5일 우리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던 찰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가 찬송에 눈물을 흘렸기에 천국에서 다시 보기를 기대한다. 아니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왜 일까!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지 소식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Kyle Wilson(카일 윌슨) 선교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되었습니다. 듀크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지금 멕시코 유카탄에서 선교사로 활동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던 땅에서 아이들에게 멋진 학교를 만들어 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안에서 꿈을 꾸게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TRICITY KoAm 트라이시티 코암

여름Su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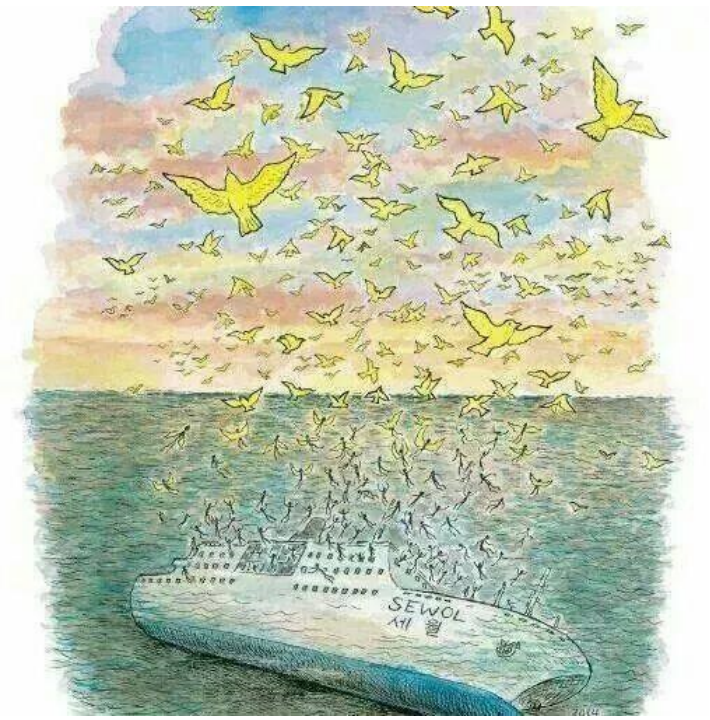
트라이시티한인장로교회 TRI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편집인: 임성철 목사
Editor: Seong Im
2109 Carolina Ave.
Bristol, TN 37620
www.tricitykpc.org
전화: 404-683-2565
Email: isaacim86@gmail.com

기고 방법: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글이 있으면 편집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람 주소 TO;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 추천

1990년 부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장하준 교수의 책이다.
이 책은 선진국들이 현재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이 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논리를 펴며 후진국들이 경제발전을 막고 있다. 그런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통렬히 밝혀 준다. 260 페이지

그림으로 보는 명상 –세월호